

돼지 콜레라 발생 주의보 발령

1987. 3. 19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발표

환절기를 맞아 최근 돼지 콜레라가 강원, 경기, 충남, 전북 일부 지역에서 10건 736두가 발생하였고 앞으로 더욱 번질 것이 우려되어 3월 19일자로 발생주의보를 발령하오니 양돈농가에서는 예방조치를 더욱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주요증상

○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모든 돼지는 일령에 관계없이 발병하고 7~21일 사이에 거의 죽는다.
○ 체온이 40~41°C로 오르고 몇 일이 지나 죽는 급성의 경우와 열이 일정치 않고 20~30일이 지나 죽는 만성적 경우도 있다.

처음에 열이 나며 사료를 먹지 않고 굶이 섞인 굳은 똥을 놓다가 냄새가 심한 설사를 한다.

○ 눈이 충혈되고 눈곱이 끼며 기침과 구토를 종종 한다.

○ 몸에는 붉은 얼룩 무늬가 생기고 뒷다리를 잘 못쓰고 비틀거리며 심한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죽게 된다.

2. 예방조치

○ 새끼돼지를 시장이나 돼지 수집상으로 부터 구입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돼지 기르는 농장에서 구입하여 2~3주간 따로 기르면서 예방주사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한다.

○ 돼지우리와 그 주변은 가성소다 등 강력한 소독약으로 계속 소독하고 외부인의 돈사내 출입을 제한한다.

○ 이 병에 걸린 돼지는 신속히 방역 당국에 신고하여 당국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역조치를 받아야 한다.

3. 예방주사 요령

○ 정상시의 정기적인 예방주사를 할 때

- 생후 30~40일령에 1차
 - 생후 50~60일령에 2차
- } — 두번주사

○ 가까운 양돈농가에 발생되고 있는 긴급한 상황일 때

- 1차 주사는 분만후 첫 젖을 먹기 전 새끼돼지에 주사

○ 번식용 어미돼지

- 씨붙이기 2~4주전에 1회 주사

○ 주사는 어미돼지와 새끼돼지 구분없이 모두 귀 뒷부분 피하나 뒷다리 근육내에 1ml를 놓는다.